

 해양수산부		보 도 자 료		 
		배 포 일	2021. 12. 15.(수) 총 2매(본문 2)	
담당 부서	해양생태과	담 당 자	• 과장 이재영, 행정사무관 장유경, 주무관 황유영 • ☎ (044)200-5310, 5315, 5317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생물연구본부		• 실장 윤문근, 선임연구원 조인영, 주임연구원 김지민 • ☎ (041) 950-0850, 0857, 0863	
보 도 일 시		2021년 12월 16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2. 15.(수) 11:00 이후 보도 가능		

세계 최초로 기수갈고둥 인공증식 성공

- 1년간 실내 사육 후 원 서식지에 방류 예정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양보호생물인 ‘기수갈고둥’의 인공증식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기수갈고둥은 바다와 하천이 만나는 기수지역에 사는 1~2cm의 작은 크기의 고둥류로, 유속이 일정하고 수질이 깨끗한 기수지역의 자갈에 붙어서 산다. 기수갈고둥은 과거에는 마을 하천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지만, 하천 정비, 제방이나 보 설치 등 개발로 인해 서식지가 훼손되면서 개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2010년대 초 73개 서식처 → 현재 51개 서식처)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2년부터 기수갈고둥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해왔고, 개체 수를 늘리기 위해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국립군산대학교 연구진과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인공증식 기술을 개발해왔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국립군산대학교 연구진은 전남 보성과 경남 고성에서 확보한 어미 개체 20마리에서 산란을 유도하여 유생을 확보하고 수온, 염도, 빛, 사육밀도 등 부유유생의 착저*를 유도하기 위한 사육조건을 연구하였다. 또한 유생의 착저율이 높은 바닥면을 개발하고 어린 기수갈고둥의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맞춤형 먹이를 조합했다. 그 결과 약 1,000개체가 어린 기수갈고둥(치패)으로 성장하면서 인공증식에 성공하였다.

* 부유생활하는 유생이 변태하여 바닥으로 내려앉아 기어다니는 어린 개체가 되는 과정

올해 인공증식으로 태어난 어린 기수갈고둥은 1년간 실내 연구실에서 성장을 한 후 내년에 주요 서식지 중 하나인 전남 보성에 방류될 계획이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기수갈고둥을 방류한 후 서식처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인공증식 기술을 담은 매뉴얼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이번 기수갈고둥 인공증식 기술 개발은 인공증식이 어려운 소형 연체동물의 복원 가능성을 열었다는 데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바다 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이를 제고하기 위해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연구와 보전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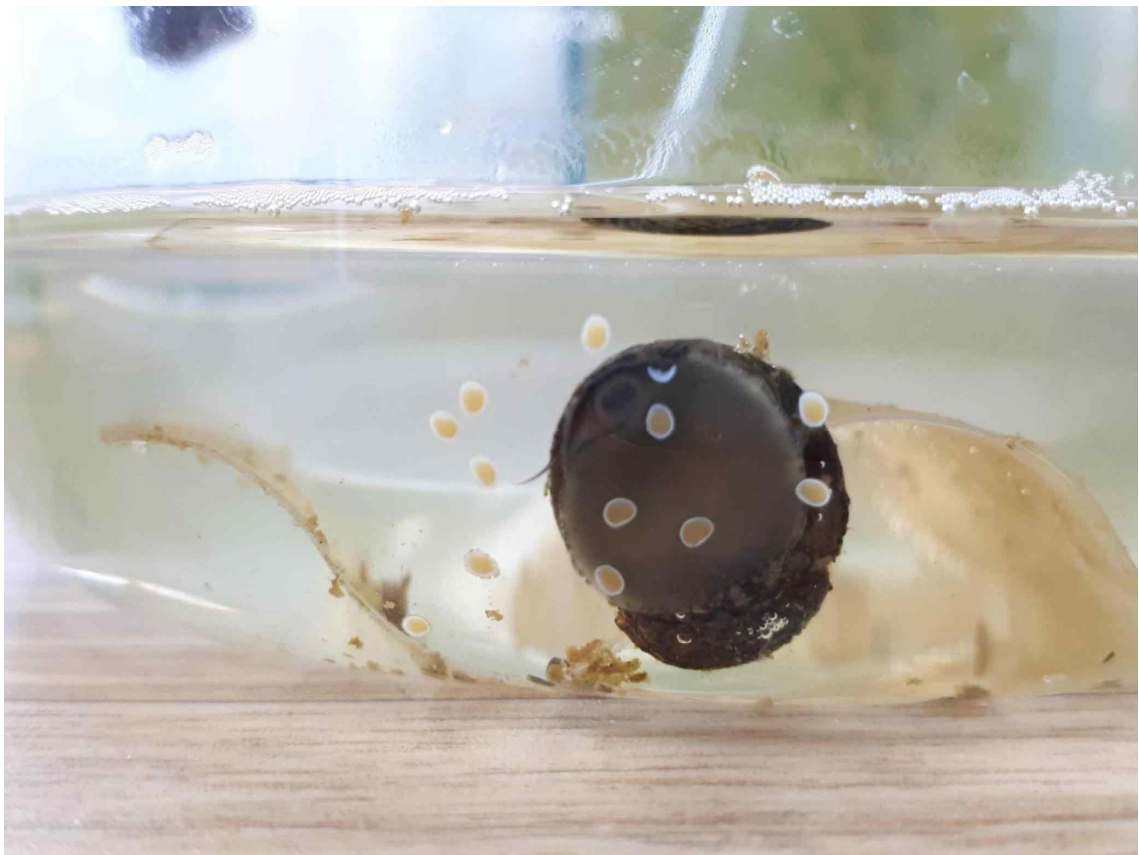
기수갈고둥 특징



국명 / 학명	기수갈고둥 / <i>Clithon retropictum</i> (Martens, 1879)
형태적 특징	- 패각(껍질)의 높이와 폭이 약 10~15mm정도인 작은 복족류 - 몸은 모두 4층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갈색 바탕에 삼각형 모양의 노란색과 검은색 반점이 있음 - 몸의 층에는 2열의 백색띠가 나타남 - 패각 입구는 반달 모양이고, 입구 안쪽 입술(내순)가운데에 작은 치상돌기의 흔적이 나타남 - 뚜껑은 석회질이며 뚜껑의 입구 바깥모서리(외순연)를 따라 황색 선이 나타남
서식지 특징	기수역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서식하는데, 각종 개발 압력에 국내 기수 환경은 점차 사라지고 있고 이러한 특수지역을 서식처로 하는 생물 역시 절종 또는 멸종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
분포 지역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남해안 하천의 기수역, 제주도 남쪽 하천의 기수역, 동해 일부 기수역에 분포



착저한 어린 기수갈고둥의 모습



알을 낳고 있는 기수갈고둥의 모습



기수갈고둥 치패의 먹이



맞춤형 기질에 붙어서 먹이를 먹는 기수갈고둥